

백신 접종·관리 부실 사실로...전남 구제역 ‘방역 참사’ 었다

1차 확진 농가 출하 직전 소 48마리 항체형성률 12.5%에 그쳐
작년 항체형성률 전국 최저에도 전남도·영암군 조치 소홀 지적
농림부 발표로 백신 접종 기피 의혹 드러나...철저한 대책 시급

91년 만에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농가의 소
출하한 백신 접종 및 방역당국의 허술한 관리 등이 맞
물리면서 빚어낸 ‘방역 참사’라는 지적<광주일보
3월19일 7면>이 정부의 공식 발표로 확인됐다.

광주일보가 단독으로 확보, 공개한 출하 직전의
소들에 대한 백신 접종 기피 의혹도 정부 발표로 사
실로 드러났다. 이번에 드러난 백신 접종·관리의 부
실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수의사 확충, 방
역 공무원 현장 참여 확대, 축산 농가 대상 철저한 자
가 접종 교육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◇농가들, 백신 접종 대중대중=농림축산식품부는
7일 영암군 구제역 확산 원인을 “농가의 백신 접종
소홀과 차단방역 미흡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. 사실
상 농가의 부실한 접종이 구제역 확산으로 이어지는
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농림부 판단이다.

농림부는 “구제역 발생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
부 한우에서만 양성으로 확인된 점을 볼 때 모든 한
우에 대해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한우는
백신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”고 밝혔다.

살처분된 소들의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률도
부실 접종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. 기준치
(80%) 미만의 항체형성률을 보인 농가들의 경우
사실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
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.

농림부 등 방역당국은 영암에서 처음으로 구제역
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사육중인 출하 직전의
소 48마리를 대상으로 항체형성률을 확인한 결과,
12.5%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.

1차 확진 농가의 경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
(SOP)에 따라 구제역 감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

육 중인 모든 한우(184마리)가 살처분됐다.

농림부는 살처분된 소들 중 출하 직전의 소만 따
로 항체형성률을 조사해 10%대에 그친 사실을 확
인했다는 것이다.

통상 출하 시기(32개월)를 앞두고 최대한 비싼
값에 팔기 위해 소의 체중을 불리는 비육 말기(28개
월)에 있는 소수는 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가 체
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농가가 백
신 접종을 꺼린다는 게 방역당국 수의사들 설명이
다. 이런 관행이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지면서 항체
형성률이 낮게 나왔다는 게 농림부 분석이다.

광주일보가 확보한 ‘영암군 구제역 확진 한우 살
처분 현황’ 자료에서도 영암에서 살처분된 소수 중
54마리(43.6%)는 25~36개월 사이의 비육 말기
소들이었다.

방역당국은 최초 확진 농가 외 다른 확진 농가
에서 사육하던 한우에 대한 항체형성률도 조사한 결
과,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
다. 3차 확진농가의 항체형성률은 43.8%에 그쳤고
4차 확진농가(62.5%), 5차 농가(65%), 6차 농가
(46.2%), 7차 농가(74%), 11차 농가(75%) 등도

기준치에 못 미쳤다.

◇부실접종, 알고도 외면했나? 농림부가 내놓은
자료는 전남도와 영암군의 방역 공백 상태를 고스
란히 드러낸다.

농림부가 밝힌 지난해 12월 기준 영암지역 내 사
육중인 소들의 대한 항체형성률은 92.3%로, 전국
모든 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. 전국 평균 항체형성
률 97.3%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남지역 22개 시·군
의 평균(97.3%)보다도 낮았다.

전국 평균보다 5%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항체
형성률이 낮았다면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점검을
진행했어야 한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
적이다.

영암에서는 또 지난해 2개 농가가 항체형성률 기
준치 미충족(80%미만)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
다. 농림부가 도축장·농장을 대상으로 항체형성률
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전국 평균
3.3% 수준인 반면, 전남도는 3.8%로 비교적 높았
다.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 실태 뿐 아
니라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개선점을 마
련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방역 전문

가들 지적이다.

농림부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경우
출입구에 차량 차단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농장
전용 의복·신발 미비지, 농장 축산차량 미등록 등
방역 수칙을 위반했고 차량이 농장을 드나들 때 소
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. 구제역 긴급행동
지침(SOP)에 따라 시·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구제
역 발생 전에도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의 소독시
설 및 소독 실시여부를 정기 점검하도록 한 수칙이
지켜지지 않은 셈이다.

전남도와 영암군 등이 안이하게 자가 점검 실태
를 관리하거나 느슨한 방역 체계를 운영, 91년 만
의 구제역 발생으로 이어졌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
나오는 이유다.

공중보건수의사 등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
계기로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백신접종 대
신, 방역 당국이 공무원과 수의사를 투입해 백신 접
종을 진행하거나 공무원들이 농가 백신 접종 현장
을 지켜보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접종 과정 전반을
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/김민석 기자 mskim@kwangju.co.kr



7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철거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.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. <전남소방 제공>

여수산단 화력발전소 철거 작업 중 화재

한국동서발전...16명 긴급 대피

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철거 현장에서
불이 났다.

7일 여수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여
수시 월내동 여수산단 내 한국동서발전의 화력발전
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. 불은 1시간 30여분 만에

진화됐다. 당시 현장에서는 LNG 발전소 설립을
염두에 두고 기존 발전소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
으며 절단공 3명과 화재 감시자 2명 등 5명이 해당
구역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중 화재가 발생한 것
으로 전해졌다.

화재 발생 직후 인근에 있던 16명이 긴급 대피했
고 이 중 1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생명에 지장은

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
소방당국은 구조물을 절단하던 중 불티가 튀어
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.

불이 난 호남화력발전소는 지난 1973년 4월 가
동을 시작, 2021년 12월 수명이 종료됐고 2022년
1월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한 뒤
철거 계획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철거 작업이 진
행됐다. 현재 한국동서발전은 인근 부지에 LNG발
전소 건설을 오는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
중이다. /김진아 기자 jinggi@kwangju.co.kr

또...논두렁 태우다 번진 산불

국가위기경보에도 무안서 0.3~0.4ha 태워...1시간 만에 진화

논두렁 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지는 일이 잇
따르고 있다.

7일 무안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
께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한 임야에서 산불이
발생해 1시간만인 오후 3시 10분께 꺼졌다.

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재까지 0.3~0.4ha
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.

무안군은 이날 산불이 발생한 지 30분 만인
오후 2시 40분께 군 전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해
임산을 금지하고 안전사고에 주의하라는 내용
을 공지했다.

이번 산불은 주민이 논두렁을 태우다 불씨가
산으로 번져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당시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
보 ‘심각’ 단계를 발령한 상태였으며, 전남 지

역에서는 나주·순천·진도·해남·화순·곡성·완도
·광양·보성·신안 등 10개 지자체가 산불재난

국가위기경보 안내문자를 보낸 바 있다.

무안에서는 지난 4일 군 전역에 ‘성묘 자제, 화
기 사용 및 소각행위 금지’ 내용을 담은 안내문자
를 보냈다. “산불 방화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에
처해질 수 있다”는 내용의 안내 문자도 보냈다.

무안군 관계자는 “봄철 농번기가 시작됨에
따라 소각 행위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
다. 산불 발생에 대한 지역민들의 경각심을 높
이는 것이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잡
초나 병충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행
위가 만연한 부분이 있다”며 “모두가 산불 예방
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”고 밝혔
다. /김진아 기자 jinggi@kwangju.co.kr

‘교육감 동창 채용 의혹’ 광주교육청 인사팀장 보석 신청 기각

‘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의혹’
으로 구속된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 법원에
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.

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
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
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(55)의 보석 신
청을 기각했다.

A씨는 지난 2022년 8월께 A씨가 감사관을 채
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
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됐다.

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
교육감의 고교 동창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되는

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
인했다.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
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
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.

이 과정에서 A씨는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
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
으로 조사됐다.

A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상
태에서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은 점, 광주시교육
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법원
에 보석을 청구했었다.

/유연재 기자 yjyou@kwangju.co.kr

함께하는
100년 농협



아름다운 동행

서광주농협

농업인·고객·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,
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NH **크**뱅크
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!

조회, 송금, 결제, 대출
그리고 금융비서까지!

전국 3,000여 개 하나로마트
에서 크!
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!



zgm.the pay 카드

-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
- 국내·해외 전 가맹점 10% 할인
- N-페이 온라인 결제 1.7% 할인
-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.2% 할인
- 전월 실적 제한없음

(무) All NEW
리치하우스
가정종합보험 (무배당)

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
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

임시거주비(숙박비+식비)
하루 20만원(1일 이상 90일 한도)
한도 실손보장(해당 특약 가입 시)
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% 환급
(매월 변동 가능,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)



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
환전·해외송금을 말하다

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
수수료 우대 적용

햇살론

열심히 사는 사람들을
위한 따뜻한 금융

저신용자, 저소득자 서민
(사업자 및 근로자)을 위한
대출, 개인신용등급에 따라
대출한도 차등 적용

본점 |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(광천동) TEL. (062) 362-8400~6 FAX. (062) 362-8407

용 산 지 점 062)526-0222~3
지 평 지 점 062)381-8212~3
쌍 촌 지 점 062)381-6551~2
화 정 지 점 062)372-0421~3

유 동 지 점 062)512-1984~5
동 립 지 점 062)513-8521~3
운 암 지 점 062)527-3295~6
운 천 지 점 062)371-2772~3

유 덕 지 점 062)373-3235~6
동 운 지 점 062)528-2640~2
배 들 지 점 062)381-1971~2
상 무 동 지 점 062)372-3741~2

운암백산지점 062)529-5335~6
빛고을로지점 062)531-1213~5
양동센트럴지점 062)361-4472~4
기아자동차지점 062)385-4977~8

동림하나로지점 062)531-7745~6
로컬푸드(시정) 062)364-8400
유타하나로마트 062)373-3235
하나로마트동림점 062)511-2901~3

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